# 『만엽집』에 보이는 '大君'의 번역어 연구*

## -서두수와 김억의 번역어를 중심으로-

박 상 현**

(e-mail: koreaswiss@hanmail.net)

目 次

1. 들어가면서
2. '大君'의 번역어
3. '聖上'과 '님'의 의미
4. 나오면서

## 1. 들어가면서

일본어 가운데 '天皇'라는 말이 있다. 이것을 일본인은 'TENNO(てんのう)'라고 발음하는데, 우리말로 고치면 '덴노' 정도가 된다. 이 '天皇'는 메이지(明治) 헌법에서는 대일본제국의 원수였고, 패전[1] 후 만들어진 일본국헌법에서는 일본국 및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天皇'라는 호칭의 우리말 표기 곧 '天皇'의 번역어가 아직까지 확고히 정착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현재 '일왕'이라는 번역어를 비교적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권을 얻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天皇'의 번역어로 '천황' 등과 같은 말도 함께 쓰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NRF-413-2011-2-A00001)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일본문화학(万葉集) 전공

1) 일본에서는 1945년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終戦記念日)'이라 부른다. 곧 '패전(敗戦)'이 아닌 것이다. 이런 용어의 차이는 '1945년 8월 15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하는가에서 생기는데, 본고에서는 '패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www.kci.go.kr

2003년 6월 9일자『오마이뉴스』는 '天皇'라는 호칭의 우리말 표기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오마이뉴스』에 따르면 2003년 6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방일했을 당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天皇'를 '천황'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식민통치라는 역사의 상흔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자국의 왕을 신격화해서 부르는 그 호칭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한 노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에 '天皇'에 대한 언론사의 표기도 '일왕'과 '천황'으로 크게 양분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대한일보, 세계일보, SBS, YTN은 '일왕'을 썼고,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KBS는 '천황'을 사용했다고 한다.[2)]

이와 같이 '天皇'의 번역어에 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논란의 역사가 그리 긴 것 같지는 않다. 같은 일자『오마이뉴스』에 의하면 한국인이 '天皇'를 '천황'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발이 생긴 것은 1989년 재일동포 지문날인 파동에서 비롯된 대일 감정 악화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天皇'를 '천황'이라고 스스럼없이 사용했다는 말이다.[3)]

'天皇'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는 곧 '天皇'의 번역어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처럼 '天皇'의 번역어에 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어떤 번역어가 사용될 때 그것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선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번역어에 따라서는 '天皇'의 번역어처럼 거기에 역사관이나 정치적인 입장 등이 농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4)]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詩歌集)인『만엽집(万葉集)』에는 '大君'이라는 가어(歌語)가 나온다. 고대일본에서는 'OHOKIMI(おほきみ)'라고 읽었는데, 지금은 보통 'OOKIMI(おおきみ)'라고 읽는다. 일본의『国語大辞典』이 "天皇の敬称"[5)]라고 풀이하고 있듯이, '大君'는 '天皇'에 대한 존칭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天皇'에 대한 우리말 표기 곧 '天皇'에 대한 번역어와 같이, 이 '大君'에 대한 우리말 표기 곧 '大君'에 대한 번역어가 아직 하나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

2) 『오마이뉴스』 2003년 6월 9일자
3) 『오마이뉴스』 2003년 6월 9일자
4) 번역어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의 표명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경원은「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에서 예를 들어 'postcolonialism'의 번역어인 '탈식민주의'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원(1993)『탈식민주의의 이론과 쟁점』문학과지성사. p.23
5) 尚学図書 編(1990)『国語大辞典』小学館. p.327

www.kci.go.kr

본고에서는『만엽집』에 보이는 '大君'라는 말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가를 고찰해보는데, 그 주된 검토 대상은 '大君'에 대한 서두수와 김억의 번역어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는 '大君'의 번역어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 2. '大君'의 번역어

『만엽집』연구에서 일가를 이룬 일본인 연구자인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는 이연숙의『한국어역 만엽집』을 추천하는 글인「대장정의 출발-이연숙 박사의『한국어역 만엽집』간행을 축하하며」에서 2012년 현재『만엽집』의 완역은 영어, 프랑스어, 체코어, 중국어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6] 아직까지 한국어로 된『만엽집』완역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로『만엽집』을 번역하고자 했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발췌 번역과 완역의 시도가 있었다.

『만엽집』의 발췌 번역으로는 구정호(2005)의『만요슈-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살림), 박상현(2006)의『천년의 연가-만엽집』(제이앤씨)과 그(2008)의『일본인의 사랑의 문화사-만엽집』(제이앤씨, 2008년), 그리고 고용환·강용자(2009)의『만엽집』(지만지) 등이 있었다. 한편 완역 시도로는 김사엽의『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韓訳万葉集-古代日本歌集)』이 있었다. 하지만 김사엽의 야심찬 목표는 안타깝게도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중단되고 만다. 결국 그의 노력은『만엽집』20권 가운데 권1~권16까지만『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成甲書房, 제1권 1984년, 제2권 1985년, 제3권 1987년, 제4권 1991년)[7]으로 일본에서 출간되어[8] 빛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사후『한역 만엽집』의 미완성 유고가 2004년에『김사엽전집』제12번(박이정)으로 나왔다. 여기에는『만엽집』권17~권20에 실린 작품 627수(首) 가운데 158수가 발췌·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일제강점기에 이미『만엽집』을 당시의 식민지 조선인에게 조선어로 소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두수와 김억이 바로 그

6) 나카니시 스스무(2012)『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박이정. p.1

7)『한역 만엽집』은 일본국제교류기금 번역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다. 박경희(2006)『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일본문학을 중심으로』한국문학번역원. pp.208-258

8) 단, 판매는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일본에서는 성갑서방(成甲書房)에서, 한국에서는 교보문고에서 각각 시판됐다.

www.kci.go.kr

들이다.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에서 최초로 '국어학·국문학'(=일어일문학) 강좌에 들어갔던 서두수(1907년-1994년)[9]는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매일신보』에『만엽집』의 작품 가운데서 '병사의 노래(防人歌)'를 뽑아 조선어로 번역·소개한「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발표했다.[10] 또한 거의 같은 시기인 1943년에 번역가이자 시인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억은「만엽집초역(万葉集鈔訳)」과『선역애국백인일수(鮮訳愛国百人一首)』를 통해『만엽집』의 작품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알렸다.[11] 서두수와 김억의『만엽집』번역은 모두 발췌 번역이었다.

그럼 지금부터『만엽집』에 보이는 '가어(歌語)'인 '大君'를 일제강점기에 서두수와 김억이 각각 어떻게 번역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 2-1. 서두수의 '大君' 번역어

이미 언급한 대로 서두수는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매일신보』에「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게재했다. 이것은『만엽집』의 작품 가운데 '병사의 노래'를 골라 조선어로 번역·소개한 것인데, 거기에 서두수가 '大君'를 어떻게 번역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다음과 같다.[12]

권20·4328
大君の　命かしこみ　磯に触り　海原渡る　父母を置きて
우리聖上 그말삼惶恐코야 기슥지나며 바다벌판건너가오 어버이남겨두고

권20·4358
大君の　命かしこみ　出で来れば　我ぬ取りつきて　言ひし子なはも
聖上의부르심 황송티밧자와 집을나서니 부여잡고서뤄하며 말하던그이어여

권20·4373

9) 그는 전(前) 카이스트 총장이었던 서남표의 아버지다.
10) 서두수의『만엽집』소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박상현(2011)「서두수의『만엽집(万葉集)』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23-236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박상현(2009)「식민주의와 번역-김억의『만엽집초역』을 중심으로」『일본연구』제26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179-196
_____(2009)「김억의『선역애국백인일수』연구」『통번역교육연구』제7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p.121-139
12) 이하의 인용은 모두『매일신보』에 실린「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에 의함.

www.kci.go.kr

今日よりは　顧みなくて　大君の　醜の御楯と　出で立つ吾は
오늘이제론 내사도라볼것가 우리聖上의 센방패내가 되여 길을내써나료니

권20·4393
大君の　命にされば　父母を　斎瓮と置きて　参出来にしを
우리聖上님 크신말삼나리다 이바어머니 神主독 모서두듯 모서두고왓노니

권20·4394
大君の　命かしこみ　ゆみの共　真寝か渡らむ　長けこの夜を
우리聖上 크신말삼어려웨라 활을잡은양 긴이밤을새을것가 기나기단이밤을

권20·4403
大君の　命かしこみ　青雲の　棚引く山を　越て来ぬかむ
聖上께서니 크신말삼어려워 구름자자진 이山저山다지나 嶺을넘어예왓소

권20·4414
大君の　命かしこみ　愛しけ　真子が手離り　島伝ひ行く
聖上께서니 크신말삼저어라 애톱고귀연 내님손써러저 섬과섬지나며가오

위에서 인용한 와카(和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두수가 '大君'를 '우리聖上', '聖上', '우리聖上님'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서두수는 '大君'의 번역어로 '聖上'을 차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 2-2. 김억의 '大君' 번역어

한편 김억은 '大君'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만엽집초역」과 『선역애국백인일수』다. 먼저 「만엽집초역」부터 살펴보자.[13]

권3·243
大君は　千歳にまさむ　白雲も　三船の山に　絶ゆる日あらめや
우리님 千歳萬歳 언제나 게실것이 흰구름『미후네』山을 써날객야 잇든고

또한『만엽집』에 수록되어 있는 와카뿐만이 아니라 에도(江戸)시대 가인(歌

13) 이하의 인용은 다음 전집에 의함.
박경수 편(1987)『안서 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p.464-469

www.kci.go.kr

人)들의 노래(歌)까지 실려 있는『선역애국백인일수』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품이 있다.14)

권2·235
大君は　神にしませば　雨雲の　雷の上に　廬せるまも
우리님 높고크사 現神이 그오시매 구름속 우뢰山우에 게오실宮 집시네

권15·3644
大君の　命かしこみ　大船の　行のまにまに　やどりするかも
御命을 받자옵고 선듯이 나선이몸 어듸나 배닿는곳서 쉬고자고 하리라

권20·4328
大君の　命かしこみ　磯に触り　海原渡る　父母を置きて
御命을 받자온몸 父母가 그무엇고 다만지 海岸을거처 난바다로 갈거나

권20·4373
今日よりは　かへりみなくて　大君の　しこの御盾と　出で立つ吾は
이賤身 높으신님 방패로 나서노라 이저것 오늘부터야 돌볼줄이 잇으랴

오구라 와시오(大倉鷲夫)
安見しし　わが大君の　しきませる　御国ゆたかに　春は来にけり
우리님 다스시는 거룩한 이나라에 봄빛이 풍성이들어 楽이가득 하더라

승녀 게쓰 쇼(僧 月照)
大君の　ためには何か　惜しからむ　薩摩のせとに　身は沈むとも
높으신 님을위핸 무엇을 앗길것가「사츠마」깊은바다에 몸이든들 잇더리

가모치 마사즈미(鹿持雅澄)
大君の　宮敷きまして　橿原の　うねびの山の　古おもほゆ
님끼서 게오실宮 지오신「카시하라」「우네비」神山바라니 옛날생각 깊소라

이시카와 요리히라(石川依平)
大君の　御贄のまけと　魚すらも　神代よりこそ　仕へきにけれ
神代로 물고기도 우리님 섬긴것을 아모리 賤한몸인들 몰을줄이 잇으랴

14) '권2·235'와 같이 노래번호(歌番号) 표기가 있는 것은『만엽집』의 작품이고, 그 외는 만엽(万葉)시대 이후 에도시대까지 가인의 작품을 의미한다.

www.kci.go.kr

쓰다 아이노스케(津田愛之助)
大君の　御盾となりて　捨つる身と　思へば軽き　我が命かな
우리님 방패로서 지을것 생각하니 이목숨 鴻毛보다도 가벼은가 하노라

다나카 카와치노스케(田中河内助)
大君の　御旗の下に　死してこそ　人と生れし　甲斐はありけれ
우리님 旗아래서 죽기곳 하량이면 산애로 태인보람야 물어무엇 하리오

위에서 인용된 와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억이 권15·3644번과 권20·4328번 노래와 같이 '大君'을 번역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大君'를 '우리님', '높으신 님', '님'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김억은 '大君'의 번역어로서 '님'을 빌려 썼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大君'에 대한 서두수와 김억의 번역어를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 번역어 / 번역자 | '大君'의 번역어 |
|---|---|
| 서두수 | 聖上 |
| 김억 | 님 |

## 3. '聖上'과 '님'의 의미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서두수는 '大君'를 '聖上'으로 번역하였고, 김억은 그것을 '님'으로 옮겼다. 그럼 지금부터 '大君'의 번역어로서 서두수와 김억이 차용한 용어인 '聖上'과 '님'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서두수의 경우다. 그는 일반적으로 '天皇'에 대한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大君'를 '聖上'으로 번역했다. 그렇다면 당시 '聖上'은 어떤 의미로 유통되었을까? '聖上'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1920년에 조선총독부가 편찬한『조선어사전』[15]과 1938년에 문세영이 편찬한『조선어사전』을 주로 참조한다. 전

15) 이 사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황호덕과 이상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사전은 일본어의 입장에서 현재의 조선어보다는, 과거 조선을 번역하기 위한 필요에서 편찬된 것이었다. 이처럼 사전의 지향점이, 소멸되는 과거 조선의 문학어, 즉 조선의 과거 문헌에 대한 해독과 관련"되어 있었다.
황호덕·이상현(2012)『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박문사. p.105

www.kci.go.kr

자는 ‘조선어 표제어-일본어 대역’ 형식의 한일이중어사전이고, 후자는 ‘조선어 표제어-조선어 풀이’라는 형식의 최초의 한국어사전이다. 또한 이런 사전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당시 매체에서 ‘聖上’을 어떤 의미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검토한다.

조선총독부(편)『조선어사전』

聖上(성샹) 名 現在の自国の帝王の尊称。[16]

문세영(편)『조선어사전』

성상(聖上) 名 현재 자기나라의 임금의 존칭.[17]

동아일보

1929년 2월 12일
춘원 이광수 작, 단종애사(73)
현실에 멀리 모시고 잇는 늙은 상궁들과 내시들도 모도 맘노코 하사하시는 술과 음식에 취코 배불러 가느단 눈으로 어리신 성상(聖上)[18]의 만수무강하시기를 빌고잇섯다.

1934년 4월 3일
神武天皇祭 宮中皇靈殿에서 聖上[19], 御 親察

1939년 12월 27일
聖上, 開院式에 親臨 優渥한勅書를下賜

1940년 7월 18일
聖上, 御答電 滿洲國皇帝陛下 御親電對하사

요컨대 조선총독부(편)『조선어사전』과 문세영(편)『조선어사전』그리고 ‘단종애사’를 다룬 동아일보 1929년 2월 12일자를 함께 검토해보면, ‘聖上’은 ‘임금의 존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아일보의 1934

16) 조선총독부 편(1920)『조선어사전』조선총독부. p.493
17) 문세영 편(1938)『조선어사전』조선어사전간행회. p.800
18) 이때 ‘聖上’은 단종을 가리킨다.
19) 이때 ‘聖上’은 쇼와(昭和) ‘天皇’를 의미한다. 이하『동아일보』1939년 12월 27일자와 1940년 7월 18일자의 ‘聖上’도 모두 쇼와 ‘天皇’를 뜻한다.

www.kci.go.kr

년 4월 3일자, 1939년 12월 27일자, 1940년 7월 18일자 기사를 종합해보면,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聖上'이 '天皇'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서두수는 일제강점기에 일상어로 '임금의 존칭'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天皇'의 번역어로도 사용되고 있었던 '聖上'을 '大君'의 번역어로 차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大君'에 대한 김억의 번역어인 '님'을 살펴보자.

조선총독부(편)『조선어사전』

님 名 「임」に同じ。[20]

임 代 懷慕せる人に対する称呼。(님)。

문세영(편)『조선어사전』

님 名 「임」에 봐라.[21]

임 代 사모하는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22]

동아일보

1926년 1월 8일

진달내꽃(金素月詩集)

내용은『님에게』『봄밤』『두사람』『無主空山』·····等 其他十種

1926년 6월 22일

愛 의 祈禱, 祈禱의 愛(上)

韓龍雲氏近作『님의 沈默』讀後感

"님이주시는한숨과 눈물은아름다운生의 藝術임니다"(後略)

위의 인용문에서 소개된 조선총독부(편)『조선어사전』과 문세영(편)『조선어사전』및 동아일보의 사례들을 같이 고려해보면, '님'이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던 것은 확실하고, 그것을 김억은 '天皇'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있는 '大君'의 번역어로 차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大君'에 대한 서두수와 김억의 번역어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서두수와 김억은 '大君'를 그냥 '大君'로 쓸 수는 없었을까? 그들이『만

20) 조선총독부 편(1920) 앞의 책. p.177
21) 문세영 편(1938) 앞의 책. p.312
22) 문세영 편(1938) 위의 책. p.1159

www.kci.go.kr

엽집』을 번역했던 1942년과 1943년경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가 상용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굳이 '大君'를 '聖上' 혹은 '님'으로 번역하지 않았어도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大君'를 '聖上' 혹은 '님'으로 번역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이런 의문이 드는가 하면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광복 후에『만엽집』완역을 시도했던 김사엽이『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에서 다음과 같이 '大君'를 그냥 '大君'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권1·3
やすみしし　わご大君の　朝には　とり撫でたまひ　夕には　いより立たしし　·····
우리 大君이, 아침엔 손에 쥐고서 만지시고, 저녁에는 가까이가 서서 ·····[23]

권2·235
大君は　神にし座せば　天雲の　雷の上に　廬らせるかも
大君은 검님이시오메 大空의우뢰 그위에다 집으시고 계시도다[24]

김사엽은 권1·3번 와카에 나오는 'わご大君'를 '우리 大君'으로 옮기면서, 'わご大君'에 대해 "わご大君-吾大皇, 我大王, 吾王, 吾皇 등을 모두「ワゴオホキミ」라고 읽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25] 여기서 그는 '우리 大君'의 '大君'를 '天皇'에 대한 존칭의 의미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사엽이 '大君'를 조선총독부(편)『조선어사전』이나 문세영(편)『조선어사전』에 나오는 것과 같이 '중전의 몸에서 낳은 아드님' 곧 '왕자'를 뜻하는 '대군'의 의미로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조선총독부(편)『조선어사전』
大君(대군) 名　王の摘出の男。(王子の大君)[26]

문세영(편)『조선어사전』
大君(대군) 名　중전의 몸에서 낳은 아드님. 王子. 大君.[27]

따라서 김사엽이 'わご大君'를 '우리 大君'로 옮겼을 때의 '우리 大君'의 '大君'

23) 김사엽(1984)『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成甲書房. p.47
24) 김사엽(1984) 위의 책. p.47
25) 김사엽(1984) 위의 책. p.47
26) 조선총독부 편(1920) 앞의 책. p.194
27) 문세영 편(1938) 앞의 책. p.341

www.kci.go.kr

는 번역어가 아니라 일본어 원어의 '大君'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차용했다고 판단된다.

결국 서두수와 김억이『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할 때 '大君'를 그대로 차용하지 못했던 것은 '大君'를 그대로 빌려 썼을 경우, 당시의 독자들이 '天皇'에 대한 존칭의 의미가 들어 있는 일본어의 '大君'를 '중전의 몸에서 낳은 아드님'을 의미하는 조선어의 '대군'으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28]

둘째, 그렇다면 서두수와 김억은 '大君'의 번역어로서 '天皇'를 차용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김사엽이『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에서 '大君'를 아래와 같이 '天皇'로도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2·199
かけまくも　ゆゆしきかも　言はまくも　あやに畏き　明日香の　真神の原に　ひさかたの　天つ御門を　かしこくも　定めたまひて　神さぶと　磐隠ります　やすみしし　わご大君の　きこしめす　背面の国の　真木立つ　不破山越えて　·····
마음에 두어 생각는것조차 조심되옵고, 입에내어 말하는것조차 더없이 두려운, 아스가(明日香)의 마검(真神)벌에 天皇궁궐 定하시고 (지금은) 검님되시어 御陵에 갊으시온 우리 天武天皇이, 다스리시는 北쪽나라 山林 욱어진 후파뫼(不破山)를 넘어서, ·····[29]

하지만 서두수와 김억이 '大君'를 조선어로 옮길 때 '天皇'를 차용하지 못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1920년에 조선총독부가 편찬한『조선어사전』뿐만이 아니라 심의린이 편찬한 1930년도판『보통학교 조선어사전』[30](이문당)에도 '天皇'라는 표제어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문세영이 1938년에 편찬한『조선어사전』에는 "일본제국을 통치하시는 임금님."으로 풀이되어 있을 뿐이다.[31] 그나마 문세영의『조선어사전』에 표제어로 '天皇'가 실리게 된 것은 이 사전이 "순전한 조선말과 이두(吏讀)는 물론이요 한문으로 된 말 기타 외국에서 들어온 말 및 학술상 용어"[32]를 담겠다는 편찬의도와 관련이 있었을

28) 참고로 모로하시 데쓰지(諸橋轍次)의『大漢和辞典』에 의하면 한적(漢籍)에서 '大君'에는 天子, 天神, 長子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한다.
諸橋轍次(1982)『大漢和辞典』大修館書店. p.392(단 초판은 1956)
29) 김사엽(1984) 위의 책. p.174
30) 이 사전은 "普通學校生徒及 指導하시는 분의 參考키 爲하야" 편찬됐다고 한다.
심의린 편(1930)『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이문당. p.2
31) 문세영 편(1938) 앞의 책. p.1374
32) 문세영 편(1938) 앞의 책. p.1

www.kci.go.kr

것이다.

결국 서두수와 김억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유통되었을 “일본제국을 통치하시는 **임금님**”으로 풀이되고 있는 ‘天皇’가 ‘大君’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大君’의 번역어로 ‘天皇’를 차용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덧붙여『매일신보』를 읽을 조선인 독자에게 ‘大君’의 번역어로서 ‘天皇’가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수 있다. 이것은『만엽집』을 번역했던 의도와도 관련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질문에서 자세히 다룬다.

셋째, 서두수는 ‘大君’에 대한 번역어로 ‘聖上을, 김억은 ‘님’을 각각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말해서 서두수와 김억은 1942년과 1943년이라는 거의 같은 시기에『매일신보』라는 동일 매체를 통해『만엽집』을 조선어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大君’의 번역어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서두수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좀 전에 자세히 검토해보았듯이 서두수는 ‘大君’의 번역어로 ‘大君’와 ‘天皇’를 차용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 ‘大君’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거나, 조선어 가운데 ‘大君’ 혹은 ‘天皇’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고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용어 곧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매일신보』와 같은 신문이라는 매체에『만엽집』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앞의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게 된다. 실제로 서두수는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만엽집』에 나오는 ‘防人’[33]라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변방직이’ 혹은 ‘邊防직이’로 조선어로 풀어서 썼던 사례가 있다.

권14·3569
**防人**に立ちし　朝明の　かな門出に　手離れ惜しみ　泣きしふらはも
**변방직이**라 길떠나던그아참 門前에덤덤 離別서러워라며 우름울던님이여

권20·4364
**防人**に　発たむさわぎに　家の妹が　業るべきことを　言はず来ぬかも
**邊防직이**떠나려 허둥지둥 지어미사롤일 내지어미사롤일 말못한양왓고야

권20·4381
国々の　**防人**つどひ　船乗りて　別るを見れば　甚もすべなし
이고장저고장　**邊防직이**모여드러 배오르니 離別새삼하누나 마음아득하여라

33) 일본어로 ‘SAKIMORI(さきもり)’라고 읽는다.

www.kci.go.kr

권20·4382
ふたほがみ　悪うけ人なり　あたゆまひ　我がする時に　防人にさす
大將두어룬 몹쓸양반이로다 토사곽난배 알코누어잇슬제 邊防직이란무삼코

권20·4425
防人に　行くは誰が父と　問ふ人を　見るが羨しさ　物思ひもせず
邊防직이라 가는이뉘郎君가 묻는女人 부럽고도부럽고야 그인근심업시라

하지만 '大君'의 번역어의 경우, 서두수는 '防人'와 같이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聖上'이라는 어휘를 차용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5음(音)·7음·5음·7음·7음이라는 와카의 리듬을 준수하면서『만엽집』의 노래를 조선어로 번역한다는 원칙이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그는 11월 2일자「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에서『만엽집』을 번역하는 기본 방침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 그러나어쩌튼 될수잇는대로 意味로뿐만아니오 **形式까지도-적어도言數에잇서서라도 全然다른傳統을가지고온 두가지를 가까히 그려보게한것이 이제실으랴는拙譯이다.**[34]

예를 들면 서두수는 권20·4341번 작품을

> 권20·4341[35]
> 서슴는고야(5) 미에리싸그곳엔(7) 아비홀로니(5) 길고긴이내갈길(7) 참아못가서슴네(7)[36]

와 같이 번역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번역원칙을 지킬 때, '天皇'의 존칭을 의미하는 '大君'를 풀어서 쓸 경우 번역문에서 5·7·5·7·7이라는 리듬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37]

또한 서두수가 '大君'의 번역어로 '聖上'을 선택한 데에는 그의『만엽집』 번역의도, 특히 '병사의 노래'의 번역의도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만엽집』에 실려 있는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번역했는가는

34)『매일신보』11월 2일자
35) 橘の　美衣利の里に　父を置きて　道の長道は　行きがてぬかも
36)『매일신보』11월 5일자
37) 서두수는 4음절로 된 '防人(さきもり)'를 '변방직이'라고 4음절로 풀어썼다. 하지만 같은 4음절이라고 하더라도 '大君(おほきみ)'를 4음절로 풀어쓰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www.kci.go.kr

다음의 인용문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數로짜진다면 말할수업시 엄청난比例로 父母그中에도 어머니 十七首쯤은 안해와離別하기서러운 表懷를『아모런숨김업시』노래하고 잇다 나는 이『아모런숨김업시』사람을 산 그들精神속에 **眞正한忠君**과**愛國의精神**이 오히려 保藏되여잇슴을 요지음**『防人精神』**을 말하는이들에게 보여서는아니될것일까.[38]

> 이구김살업는마음(천황과 일본을 위해 죽음을 돌보지 않는 병사의 마음. 인용자주)이 이 亦記念한 語感으로 험박담은『大君』『わが大君』니하는聖上을 우르러 一死忠君을能히한다 純情이殉情을이룬다 正直한鳴咽이 偉大한慟哭을이룬다 그리하여이에는 오직더러 퍼지지안는**피의脈動**이同一하여서이다 이同調的인 **피의論理**-이것이 바야흐로 **防人精神**이며 **眞正한日本心**이다.[39]

요컨대 서두수는『만엽집』에 실려 있는 '병사의 노래'에서 병사의 정신(防人精神)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일본심'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말해서 '진정한 충군(忠君)[40]과 애국의 정신을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이식(移植)'하고 싶었기에 그는『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했다.[41]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번역의도를 잘 드러내는 데에 '현재 자기나라의 임금의 존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조선총독부(편)『조선어사전』과 문세영(편)『조선어사전』그리고 동아일보의 기사들에서 이미 검토했듯이 당대 식민지 조선에서 '天皇'의 번역어로도 유통되고 있는 '聖上'이 적절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럼 다음으로 김억이 '大君'의 번역어로 '님'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앞에서도 자세히 살펴봤듯이 조선총독부(편)『조선어사전』과 문세영(편)『조선어사전』및 동아일보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시어(詩語)인 '님'을 김억은 '大君'의 번역어로 차용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김억이『만엽집』을 조선어로 옮겼던「만엽집초역」에서 '님'이라는 시어를 무척 애용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42]

---

38)『매일신보』11월 3일자
39)『매일신보』11월 3일자
40) 이때 '충군'은 말할 것도 없이 '天皇'에 대한 것이다.
41) 박상현(2011)「서두수의『만엽집(万葉集)』번역에 관한 연구」『일본문화학보』제3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232
42) 이하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www.kci.go.kr

「만엽집초역」

권2·200
ひさかたの　天知らしぬる　君故に　日月も知らに　恋ひ渡るかも
저하늘 다스옵는 놉즈신 님이시여 세월이 가면갈사록 생각더욱 깁소다

권4·499
百重にも　来しかぬかもと　おもへかも　君が使の　見れどあかざらむ
百千番 올가올가 생각을 하온탓가 님消息 사람왓건만 맘채울길 업소라

권2·133
小竹の葉は　み山にさやに　さやげども　われは妹思ふ　別れ来ぬれば
댓닙은 사로사로 길까서 노래건만 一片心 떠나신님야 니즐길이 잇으리

권6·639
吾背子が　かく恋ふれこそ　ぬばたまの　夢に見えつつ　いねらえずけれ
이몸을 아니닛고 생각을 하는탓가 꿈속에 그님이뵈여 잠못이뤄하노라

여기서 권2·200번의 '君(KIMI, きみ)'는 죽은 다케치 황자(高市皇子)를, 권4·499번의 '君'는 사랑하는 남성을, 권2·133번의 '妹(IMO,いも)'는 죽음 아내를, 권6·639번의 '吾背子(WAGASEKO, わがせこ)'는 사랑하는 남성을 각각 의미하고 있는데, '君'·'妹'·'吾背子'의 번역어가 모두 '님'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김억은 죽은 다케치 황자, 사랑하는 남성, 죽음 아내를 모두 '님'으로 옮기고 있다.

또한 김억은『선역애국백인일수』에 수록된『만엽집』의 작품에서도 '님'이라는 시어를 적지 않게 썼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天皇(SUMERAGI, すめらぎ)'도 '님'으로 번역했다는 사실이다.

『선역애국백인일수』

권18·4097
天皇の　御代栄えむと　東なる　みちのく山に　金花咲く
님끼서 다스시는 이聖代 즐겁을시 東便도「미치노쿠」선 黃金꽃이 피나니[43]

결국 김억은 '大君'뿐만이 아니라 작고한 황자, 사랑하는 남성, 죽은 아내, '天皇'를 뜻하는 어휘를 모두 '님'으로 번역했다. 그런 의미에서 김억은 '님'을

박경수 편(1987) 앞의 책. pp.464-469
43) 박경수 편(1987) 앞의 책. p.493

www.kci.go.kr

‘사모하는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로 일반화하여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억이 서두수가 차용했던 ‘聖上’을 ‘大君’의 번역어로 빌려 쓰지 않고 굳이 ‘님’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거기에는 서두수를 의식하여 그가 차용한 ‘大君’의 번역어를 일부러 피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김억이 민요(民謠)시인이었고, 또한 민요가 시적 대상을 ‘님’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44]

또한 김억이 ‘大君’의 번역어로 ‘聖上’을 빌려 쓰지 않고 ‘님’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데에는 그의『만엽집』번역스타일도 깊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김억은 서두수와는 다르게『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할 때 31음 곧 5·7·5·7·7로 된 와카를 초장이 3·4·3·4이고 종장이 3·5·4·3으로 끝나는 ‘양장(兩章)시조형’으로 번역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권4·639[45]
이몸을(3) 아니닛고(4) 생각을(3) 하는탓가(4)
꿈속을(3) 그님이뵈여(5) 잠못이뤄(4) 하노라(3)[46]

이처럼 김억의 번역스타일은 번역학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 낯설게 하기가 아니라 익숙하게 번역하기였고, 원천언어중심주의가 아니라 도착언어중심주의였다. 곧 김억은 철저하게 식민지 조선인에게 위화감이 없도록『만엽집』을 번역하고자 했다.

필자가 방금 지적한 번역어와 번역 스타일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김억은『선역애국백인일수』의 ‘권두소언(卷頭小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おほきみ」,「きみ」또는「すめらぎ」같은말을 그대로 直譯하지 아니하고 **「높으신님」,「높은님」,「우리님」또는「님」으로 곳인것에는 이미 和歌를 兩章時調型에다(初章三四三四終章三五四三) 담아놓는以上 亦是時調響**

44) 민요시인으로서의 김억과 민요에 나오는 ‘님’에 관한 논문은 그 수가 적지 않은데, 참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창식(1962)「민요의 님과 현대시의 님」『국어국문학논문집』제18집,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정교주(1995)「김억의 민요시 연구」『돈암어문학』제7집, 돈암어문학회
조병춘(1998)「김억의 민요시 연구」『새국어교육』제55집, 한국국어교육학회

45) 吾背子かかく恋ふれこそぬばたまの 夢に見えつゝいねらえすけれ(吾背子我 如是恋礼許曾 夜于玉能 夢所見管 寐不所宿家礼)

46) 박경수 편(1987) 앞의 책. p.464

www.kci.go.kr

**으로의 用語를 使用치안을수가 없다는 見地에서외다.** 그러치아니하면 넘우도 딱딱하야 조곰도 노래답지 안키때문이외다.[47]

게다가 이와 같은『만엽집』번역스타일과 더불어『만엽집』의 번역의도도 또한 김억이 '大君'의 번역어로 '님'을 차용하게 했을 것이다. 즉 그는『만엽집』과 같은 일본의 고전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이유를『선역애국백인일수』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愛國百人一首란 大體 그內容이 엇던것인가, 그輪廓이나마 보여주는 同時에 **皇民化**와 **國語普及**과의 두가지 운동에 이것이 죠곰이라도 돕음이 된다면 譯者로의 다시없는 榮光이외다[48].

위 인용문은『선역애국백인일수』의 '권두소언'인데, 여기서 김억은 그 번역의도가 '황국신민화'와 '국어(=일본어) 보급'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大君'의 번역어로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친근감을 주는 '님'이 선택됐다고 판단된다.

## 4. 나오면서

지금까지 본고에서는『만엽집』에 보이는 '大君'라는 가어(歌語)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大君'에 대한 서두수와 김억의 번역어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두수는 '大君'의 번역어로 '聖上'을, 김억은 '님'을 각각 차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두수가 '大君'를 '聖上'으로 번역한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서두수는 와카의 리듬인 5·7·5·7·7에 따라『만엽집』의 노래를 당시의 조선어로 번역했다. 따라서 그는 '天皇'의 존칭을 의미하는 '大君'를 우리말로 풀어서 쓸 경우 5·7·5·7·7이라는 리듬을 지키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둘째, 그는『만엽집』에 실려 있는 '병사의 노래'에서 병사(防人)의 정신 곧 '진정한 충군(忠君)과 애국의 정신'을 발견하여 그것을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이식하고 싶어서『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번역의도를 나타내는데 '聖上'이 적합한 어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말이 '현재 자기나라의 임

47) 박경수 편(1987) 앞의 책. p.476
48) 박경수 편(1987) 앞의 책. p.474

www.kci.go.kr

금의 존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天皇'의 번역어로도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김억이 '大君'의 번역어로 '聖上'을 차용하지 않고 '님'을 빌려 쓴 이유는 대체로 이렇다. 즉 첫째, 이미 서두수가『매일신보』에서 '大君'를 '聖上'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았던 김억은 의식적으로 서두수의 번역어인 '聖上'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김억이『만엽집』및『애국백인일수』를 조선어로 번역한 의도는 '황국신민화'와 '국어(=일본어) 보급'에 있었다. 특히 황국신민화를 생각했을 때 김억은 '大君'의 번역어로 '님'이 조선의 신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시어(詩語)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의 판단에는 그가 민요시인으로서 '님'이라는 '시어'에 익숙해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大君'에 대한 서두수와 김억의 번역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번역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택될 수도 있지만,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는 그런 것과 동시에 번역자의 정치적 입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49]

49)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大君'의 번역어로 차용되었던 '聖上'과 '님'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즉 후대에서도 '大君'의 번역어로 그대로 사용되었을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새로운 글에서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일본문화학회 제43회 국제학술대회(2012년 10월 27일, 충남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www.kci.go.kr

# 【參考文獻】

김사엽(1984)『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成甲書房. p.47
나카니시 스스무(2012)『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박이정. p.1
문세영 편(1938)『조선어사전』조선어사전간행회. p.800
박경수 편(1987)『안서 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p.464
박경희(2006)『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일본문학을 중심으로』한국문학번역원. pp.208-258
박상현(2009)「식민주의와 번역-김억의『만엽집초역』을 중심으로」『일본연구』제26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179-196
_____(2009)「김억의『선역애국백인일수』연구」『통번역교육연구』제7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p.121-139
_____(2011)「서두수의『만엽집(万葉集)』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32
심의린 편(1930)『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이문당. p.2
조선총독부 편(1920)『조선어사전』조선총독부. p.493
황호덕·이상현(2012)『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박문사. p.105
『매일신보』11월 2일자, 3일자, 5일자
『오마이뉴스』 2003년 6월 9일자
尚学図書 編(1990)『国語大辞典』小学館. p.327
諸橋轍次(1982)『大漢和辞典』大修館書店. p.392(단 초판은 1956)

www.kci.go.kr

## 要 旨

本稿では『万葉集』における「大君」という歌語が日帝強占期(=植民地時代)に朝鮮語でどのように翻訳されてきたかを徐斗銖と金憶の飜訳語を通して考察してみた。その結果、徐は「大君」の翻訳語として「聖上」を、金は「님(ニム)」をそれぞれ借用し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た。

徐斗銖が「大君」の翻訳語として「聖上」を借用したことには様々な理由があるが、主な理由としては次のようなこと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第一、徐は『万葉集』を朝鮮語で翻訳した際、5·7·5·7·7を尊重しつつ訳した。したがって、彼は「天皇」の尊称を意味する「大君」を朝鮮語で翻訳する時、「防人」の翻訳語(=변방직이)のように言葉で説明するやり方を取れなかった。第二、日帝強占期に「聖上」という用語は「現在の自国の帝王の尊称」という意味として用いられていたと同時に、すでに植民地朝鮮では「天皇」の飜訳語としても借用されていた。

一方、金憶が「大君」の飜訳語として「聖上」借りず、「님(ニム)」を使った理由も様々だが、主な理由は次のようだ。第一、徐斗銖が早くも『毎日申報』の中で「大君」を「聖上」と訳したことを知った彼は、意識的に「聖上」という用語を避けた可能性がなかったとは言えない。第二、金憶が『万葉集』及び『愛国百人一首』を朝鮮語で翻訳した意図は「皇国臣民化」と「国語」(=日本語)の普及にあった。特に、「皇国臣民化」を念頭に入れた際、彼は「大君」の飜訳語として「님(ニム)」が朝鮮の臣民に違和感を与えるところか、かえって親近感を被らせる詩語だと考えたであろう。そして、そうした彼の判断には金憶が民謡詩人として「님(ニム)」という用語に親しま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働いたであろう。

以上のように、「大君」の翻訳語をめぐった歴史を通してわかってきたことは、飜訳語ということは単なる個人的な趣向によって選ばれる場合もありうるが、日帝強占期といった時代ではそれと同時に、飜訳者の政治的な立場によって選択される場合もあったということだ。


キーワード：万葉集、大君、徐斗銖、金憶、翻訳語

투　　고：2013. 2. 28
1차 심사：2013. 3. 16
2차 심사：2013. 4.  6

www.kci.go.kr